“재즈·트롯부터 대중가요까지 ‘광주팝스’가 노래합니다”

‘광주팝스합창단 창단연주회’
12월2일 ACC 예술극장 극장2
현역 가수·성악 전공자 등 구성

이용호 지휘자

이용호 지휘자(왼쪽)와 광주팝스합창단이 리허설을 진행하는 모습. 〈광주팝스합창단 제공〉

“광주에도 대중가요를 전문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단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합창단을 창단했어요. 대중가요를 위주로 노래하지만 다양한 장르까지 섭렵하고 있죠.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 갈 시너지가 합창의 지평을 넓히리라 생각합니다”

‘광주팝스합창단’의 창단 연주회를 앞둔 이용호 지휘자의 말이다. ‘합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성악가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재즈나 트롯, 대중가요까지 부르는 합창단이 광주에서 창단 연주회를 앞둬 이목을 끈다.

2021년 5월 창단한 광주팝스합창단(단장 박순애·광주팝스)이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광주팝스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연다. 12월 2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광주팝스는 재즈, 포크, 록을 비롯해 트롯, 요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가수, 실용음악·성악 전공자로 구성됐다. 연세대 성악과 출신 재즈보컬리스트 이용호가 지휘·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김수곤(기타), 박수지(건반), 강칠성(색소폰) 등 대중음악 전문 뮤지션이 포함된 혼성 4부 팀이다.

이용호 지휘자는 “소속 단원 총 30명 중에 현역 가수가 15명, 성악가가 3명”이라며 “이외에도 전문 연주자 등 장르별 전문가들까지 전 단원이 하나가 돼 음악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팝스만의 음악적 특성은 무엇일까. 클래식 합창단이 비슷한 톤과 발성법으로 노래하는데, 이와 비교되는 광주팝스만의 특징을 물었다. 이 지휘자는 “‘합’을 중시하는 클래식 합창단은 단원들이 마이크를 공유하지만, 광주팝스는 개인의 음색과 개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개별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음악적 밸런스를 잡기 위해 편곡까지 시도하고 있는 점도 이목을 끌었다. 이번 창단 연주회도 지휘자 이용호, 작곡가 한상은의 손을 거친 작품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들은 일찍이 2021년 11월 JS빅밴드(지휘 김성광)와 협연으로 첫 공연을 마쳤지만, 막상 신생 단체에게 기념비가 되는 ‘창단 연주회’는 아직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후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창단연주회가 미뤄졌지만, 그만큼 더 완성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전 단원이 개성과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습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이 지휘자의 말은 펜데믹이 창궐해 전체 정원의 30% 정도만 입장할 수 있던 수년 전 공연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상적인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탓에 늦게나마 창단연주회를 마련한 것.

한편 이번 무대에서는 최성원의 ‘그것만이 내 세상’, 심수봉 곡 ‘비나리’, 김지환 등의 ‘찐이야’를 단원들이 부를 예정이다. ‘뉴욕 뉴욕’도 편곡해서 들려주며 박순애, 고선향의 요들송 ‘아름다운 베르네’도 울려 퍼진다. 김민기의 ‘상록수’, ‘아침이슬’과 5월 광주의 민주정신을 환기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선보인다.

‘문 리버’, ‘스탠 바이 유어 맨’ 등은 재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곡들도 기대를 모은다. 이외 이용호의 ‘아름다운 운명’, 민재홍의 ‘가을사랑’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광주팝스합창단 세션은 ‘Autumn Leaves’를 스윙 재즈 버전으로 들려주며, 우정 출연하는 신계행은 ‘사랑이 온다’, ‘소중한 사람’을 부른다.

이 지휘자는 “창단연주회에서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국내·외 명곡들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후 공연에서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대중가요 레퍼토리로 다가가 ‘호남’을 대표하는 대중가요 합창단으로 발돋움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비판·풍자·서사…호남 서술시사 600년

최한선 교수 ‘호남 서술시의 사적 전개와 미학’ 펴내

판소리는 소리와 아니리, 발림으로 구성된 민속음악이다. 판소리의 묘미는 “구구절절 꼬고 비틀며, 당겼다 튕겨서 풀어내는” 데 있다. 이를 ‘서술시적 발화’라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구성진 가락은 물론 희로애락이 느껴진다.

판소리를 포함해 호남 시, 특히 한시는 낭만적 서정성은 물론 방외적 저항성, 섬세한 언어미가 특징이다. 지금까지 계승, 발전돼 올 수 있었던 것은 ‘서술 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시작 태도 덕분이다.

호남 서술시사 600년을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전남도립대 최한선 명예교수가 펴낸 ‘호남 서술시의 사적 전개와 미학’(보고사)은 비판시, 풍자시, 서사시 등 호남 시편을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뒤틀린 현실의 개혁과 모순의 해결, 불합리한 현실의 고발과 풍자 등을 통하여 애민정신 발현과 우국의 충정 등을 토로한 시편들이 한 조류를 형성하여 부단히 계승되고 발전되면서 다양하게 실현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그동안 연구한 논문에서 그 실상을 파악한 공통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호남 시학을 면면히 타고 흐르는 시학에 자리 잡은 ‘서술시’에 초점을 맞춰 그 미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한 것.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사와 한시 연구로 석사와 박사를 받고 오랫동안 고전문학을 연구해온 작가의 공력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책은 ‘풀이의 서술성을 찾아서’, ‘호남 사림과 최부 인맥’, ‘호남 서술시의 사적 흐름과 미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풀이적 서술시에 대한 전개와 미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저자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시학, 남도를 지키고 이끌어온 시 창작의 힘, 그것은 “남도의 뻘밭처럼 진하고 질펀하며 도도한 적층(積層)의 힘”이라고 본다. 그것은 곧 전통이며 “전통은 곧 역사이며 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 교수는 동아인문학회 회장, 한국시가문화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중국 절강대학 객좌교수로 있다. ‘오늘의 가사문학’ 편집 주간을 맡아 가사의 현대화 작업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색으로 떠나는 예술 순례

오수경 전, 30일~12월12일 충장22갤러리와 카페

‘수처작주’

성지 등을 방문해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일컬어 순례자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역사에는 순례자들이 적지 않았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갔던 현장법사 등이 대표적이다.

오수경 작가가 ‘필그림 Pilgrim-순례자’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충장 22 갤러리와 카페.

전시실에 들어서서 마주한 그림은 무엇보다 색채가 이색적이다. 일반적인 색감과는 다른 동양과 서양이 혼재된 느낌의 색이랄까, 그림들이 발하는 분위기가 신비로우면서도 단아하다. 아마도 작가는 색채를 매개로 예술이라는 순례를 깊고 다채롭게 표현한 것 같다.

오 작가는 “고대 실크로드에서 일어났던 ‘탈지역적 교류’가 이번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며 “역사 속의 순례자를 나와 동일시해서 색감이나 구도 등 면에서 동아시아를 아우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작가는 서양 중심 그리고 한국 중심을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몰두했다. ‘탈 지역적 교류’ 등을 사유에 중심에 두고 이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전개한 것. 고대 실크로드에서 일어났던 교류를 재현한다는 생각이 오늘의 작품에까지 이르렀다.

눈에 띄는 작품은 ‘수처작주’(Wherever You Are).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라(隨處作主)는 뜻을 제목으로 삼은 뜻이 깊고 오묘하다. 화면을 메운 그림은 비파나무로, 작은 열매에 비해 커다란 잎이 대조적이다. 작가가 굳이 비파나무를 수처작주에 연계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흔히 볼 수 없는 나무인데다 열매도 작지만, 미려하면서도 신비한 색감과 형태가 심미적인 감성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황적색 바탕에 적색 반점이 있는 범부채 꽃 그림도 눈길을 끈다. 쥘 부채 모양도 그렇지만 색감이 주는 아우라가 고대 실크로드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서구와 인도, 로마 등 동서양이 교묘하게 융합된 아우라가 배어나온다. 작가의 내면 언저리에 드리워진 고대의 풍경과 작품으로 발현된 색감, 형태의 삼각관계가 흥미롭다.

오 작가는 “앞으로도 5~6년간은 이 같은 맥락의 작업을 지속할 생각”이라며 “일종의 ‘프로젝트성 작업’인데, 이를 통해 저만의 색이랄까 저만의 예술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작가는 이화여대 서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롯데갤러리 전시 등 지금까지 12회 개인전과 100여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아트페어 등에 참가했으며 이화여대와 전남대, 광주교대 등에 출강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 〈라포르 색소폰앙상블 제공〉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의 따스한 음색

아마추어 색소폰 합주단 공연…12월4일 광주교대 풍향문화관

교수, 의료인,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광주 유일 아마추어 색소폰 합주단이 무대에 오른다.

라포르 색소폰앙상블(단장 송삼홍)이 16회 정기공연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을 12월 4일 오후 7시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연다.

‘Sing Sing Sing’, 비틀스 곡 ‘오블라디 오블라다’, 쉘위댄스 OST ‘Sway’에 이어 ‘오페라의 유령’, ‘헝가리 무곡 5번’, ‘카스바의 여인’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한종호 하모니시스트의 ‘체리 핑크 맘보’ 외 2곡, 타악그룹 얼쑤의 ‘퓨전타악 리듬 질주’ 등 특별공연도 마련된다.

이외 류가림 색소포니스트는 비틀즈의 ‘Hey Jude’를 솔로 연주로 들려준다. 국제음악제 버스킹 경연대회에서 특별상, 글로벌 명인대상(음악부문) 등을 수상했다. 현재 모짜르트 실용음악학원장.

색소포니스트 류가림이 2004년 창단한 라포르 색소폰앙상블은 광주·전남 시민들로 구성된 광주에서 유일한 아마추어 색소폰 합주단이다. ‘라포르’가 불어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듯, 매년 정기 공연과 재능기부 봉사 연주회로 시·도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다.

송삼홍 단장은 “색소폰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한 곡씩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곡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색소폰만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음색, 여느 악기에도 비견될 수 없는 풍성한 화음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잊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운권을 추첨해 알토색소폰을 경품으로 주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석 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